

# “UR재협상, 국회비준 거부하라”

## — 전국 11개 도시에서 UR비준 저지 국민대회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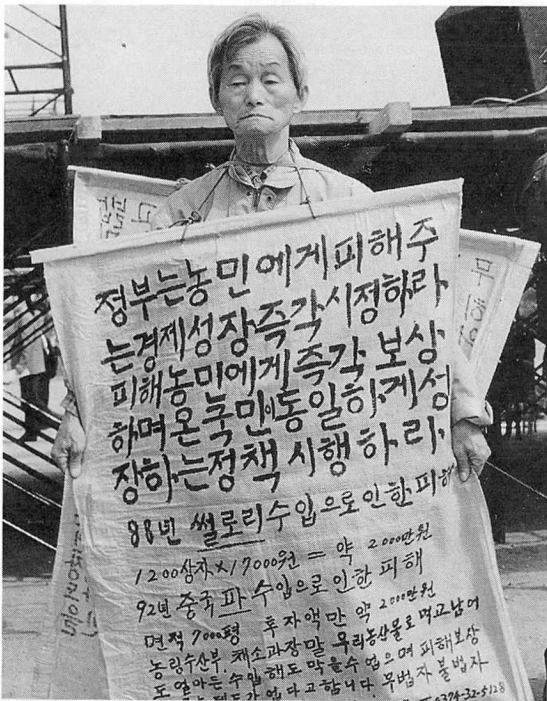
「UR협상 규탄과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국민대회」가 지난 4월 9일 하오 우리농업지킴기 범국민운동본부(상임집행위원장 : 단국대 장원석 교수) 주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개 도시에서 농민, 학생, 재야단체 회원 등 4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서울에서는 오후 3시 보라매공원에서 전국농민연합, 한국대학생총연합회 등 197개 단체

회원과 야당 의원, 시민 등 1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여의도광장까지 4km를 가두행진했다.

이날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협상능력 부재를 규탄하고 국회비준 거부를 결의하는 성명서와 대국민호소문을 채택하고 UR 이면협상 진상규명과 재협상 등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UR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사대주의와 무능력으로 농민들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겼다」며 밀실협상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 대통령의 공개사과, 국회의원들의 비준 거부 등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한총련 소속 풍물패를 필두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신대방로를 거쳐 여의도광장까지 가두행진을 벌여 여

의도 일대의 교통이 심한 혼잡을 빚었다.

여의도광장에 도착한 참석자들은 저녁 8시 쯤 정리집회를 갖고 자진 해산했으나 한총련 소속 학생들은 밤늦게까지 지하철역과 거리에서 홍보활동을 벌였고 50여명의 구국단식단은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